

위덕대 개교 10주년 기념 엠블렘 제작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총장 한재숙)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대학 엠블렘(사진)을 4월 4일 제작 발표했다. 엠블렘은 미술학부 배중현 교수 도안으로 교수(敎獸)인 무소의 뿔을 형상화해 대학 이미지의 일관성을 표현했다. 또 5불을 상징색(백색:비로자나불, 적색:아축불, 황색:보살불, 청색:아미타불, 흑색:불공성취불)으로 사용해 종립 학교로서의 특수성을 나타냈다. 위덕대학교측은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의 굳은 의지를 요약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엠블렘에 대해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과제당 논문게재수 동국대 전국 최고

과기부와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사업성 분석결과 과제(센터)당 논문 게재수에서 동국대가 가장 많은 성과(23.89편)를 올렸다. 동국대는 과제당 SCI 논문게재 수에서도 19.33편으로 한국과학기술원(14.43편)과 포스텍(13.87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과학재단의 20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분석결과에서 동국대는 연구비 10억당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수에서 경북대와 부산대에 이어 76.03편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구비 10억당 SCI 논문 수에서도 동국대는 경북대 70.20편의 뒤를 이어 61.53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분석은 2004년 과기부가 한국과학재단과 공동으로 1천7백88억원을 투입한 협약과제 9백19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남동우 기자

불교단체 프로그램 공모 유적답사 등 4개 선정

2006년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유적답사, 이혼상담, 청소년 인권마당, 바른선교 운동 등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응모한 한빛의국인노동자센터와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에게는 이 달내 총 3000만원이 지원된다. 조계종 사회부는 4월 10일 선정단체 실무자간담회를 개최한다. (02)2011-1820 박봉영 기자

‘장애인의 날’ 행사 풍성하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장애인 세상 나들이다. 4월 18~20일 장애인이 20명이 가족 20명과 손에 손을 잡고 북한 금강산을 구경하러 떠난다. 재단 산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거동 가능한 1, 2급 장애인들은 18일 금강산 콘도에서 집결한 후 북한으로 출국해 구룡연 및 해금강, 온정각, 만불상 등을 관광하며 북한 땅을 직접 밟아본다. 또 남북한의 불심이 하나로 모인 신계사를 참배하고 ‘빈자일등’의 정신을 담은 연등을 밝히며 북

금강산 신계사에 연등 밝히기·요리 만들기 운동회·바자회·노래자랑 등 프로그램 다채

녘 땅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도 ‘장애인의 날’ 당일 요양시설 내 장애인 아동 20명과 함께 서울 삼성동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꿈이 있는 봄나들이’를 실시한다. 획일화된 기념행사에서 탈피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직접 주변의 소중한 이웃을 초대해 자신이 조리한 음식을 대

접하는 ‘아주 특별한 만찬’을 기획하고 있다. 18일 지역 장애인 20명이 제천과학대학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멋진 요리 만들기 도전을 한다. 이들은 부모, 형제,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웃 등에게 직접 만든 정성스런 음식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전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2~6시에는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야외체육장에서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하는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은비 기자

미니바자회를 여는 곳도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날 행사기간인 4월 12~11일 관내에서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니바자회’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어울림한마당, 무료대중공양을, 19일에는 강북노래자랑 등을 연다. 경주, 영주, 군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날’ 당일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및 장애체험행사, 가두행진 등을 갖는다.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은 20일 지역 주민 및 유치원생에게 개방행사를 열어 장애인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불교인재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상적인 재가불자상 정립을 발원하고 있다.

‘사람’이 미래...인프라구축 나서

조계종 중신회 ‘불교인재개발원’ 발기인대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망 있는 재가 불자들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는 4월 6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발기인에는 윤원호·최재천·신상진·안홍준 의원 등 정계 인사들 비롯해 허달 한국화인계 미술 상인고문, 신현식 금호아시아나 부사장 등 재계 인사, 김동건 영남대 이사장, 김용택 동국대 부총장 등 학계 인사,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정준 한국학문화원장, 장선우 영화감독 등 문화계 인사 252명이 참여했다. 발기인들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재가불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대 상임대표

로 박준영 전 환경저장관을 선출하는 한편,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허경만 전 국회부의장, 황경환 진양유조선 대표,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불교인재개발원은 7월 창립을 목표로 불교지도자들을 묶는 인적맥락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대중생활강화 개설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5월과 6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김명문 문화관광부 장관을 초빙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매월 불교와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인재개발원은 첫 대중강좌 일일교사로 5월 16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예술장에서 각하사 선덕 고우 스님 초청 <동행본 육조단경> 강좌를 개설한다. (02)733-7277 글·사진=박봉영 기자

혜명복지원, 불교복지 개척 60년

어린이집 10곳등 포교·교육 견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은 4월 5~11일 세종문화회관 신관 제1·2 전실실에서 ‘청소년 가장되기 선서화전’을 개최했다. 60주년을 기념하고 내실 있는 복지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혜명복지원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혜명보육원으로 문을 열었다. 해방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불교 아동복지시설이었다. 당시 뜻있는 불자 독지가였던 김기용씨가 설립한

혜명보육원은 71년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서울 도선사에 이양됐고 78년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으로 명의를 변경했다. 혜명복지원은 이후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및 청담어린이집, 금천자활후생기관 등을 운영하며 불교사회복지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구립 어린이집인 도봉보림 노유 파광사 마당 성북어린이집 등 10곳의 구립 어린이집과 미아6동 자비의 집,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등을 위탁 운영하며 어린이

포교,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기여해 왔다. 혜명복지원 이사장 해자 스님은 “청담 큰스님이 생전에 특별히 강조하신 자비는 사회구성원들이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책임진다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내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더욱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도감 만들기’, 정족산성을 돌며 생명명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새소리와 함께 여는 아침’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02)720-1654 budaeo7@komet.net 박봉영 기자

백제 불교유적지 발굴 본격화

군수리·왕흥사지 조사 착수 백제 불교 주요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송의정)는 4월 4일 사적 제44호 부여 군수리사지(扶餘軍守里寺址)에서 개도제를 지내고 제4차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2005년 70년만에 이뤄진 제 3차 발굴조사의 후속조사로 목탑지, 금당지, 동편기단지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 및 개별 유적에 대한 내부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여 군수리 사지는 백제 사비기(538~660)사찰지로 1935~1936년 발굴조사 당시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등 1탑1금당의 전형적인 백제사찰 가람구조가 확인되었으며 목탑지 심초석 상부에서 보물 제 329호 부여 군수리사지석조여래좌상 및 보물 제 330호 부여군수리금동미륵보살입상 등이 출토돼 관심을 끌었다. 부여문화재연구소는 사적 제 427호 부여 왕흥사지 7차 발굴조사를 4월 6일 시작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부여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발굴조사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발

굴조사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봄숲의 숨결 느껴볼래” 환경연대, 어린이 캠프 아이들과 함께 전통사찰과 숲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캠프가 열린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4월 22~23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봄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생 이상으로 35명을 모집하는 이번 캠프는 숲속 자연놀이, 사찰문화체험, 강화도 유적지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봄숲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나무와 하나되기’, 봄소식을 알리준 봄꽃을 관찰하는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잠정중단

조계종 환영 논평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어온 통영시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4월 7일 공사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통영시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조계종 총무원, 쌍계사, 용화사, 통영시,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6자협의기구를 구성 하자는 조계종 총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결정 직후 발표한 환영논평을 통해 “통영시청의 공사중지 결정은 우리 사회

환경 갈등을 해소하는 상생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통영시의 대화와 합의가 원만한 진행과 합의안이 나올 경우 지역불교계 뿐만 아니라 조계종단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는 통영시 도남동과 산양읍 영운리 구간에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공사로, 통영시가 상부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용화사 경내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불교계와의 갈등을 야기했다. 박봉영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06년 총동문회 정기총회

귀의삼보하옵고 모든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계절입니다. 각 처에서 수행과 전법교화에 전념하시면서 동문회의 발전에 몰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신 동문스님들의 평온하심을 축원하며, 佛祖의 光明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회에서는 회칙 제7장 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본회와 모교발전을 위하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명예회장 겸산 중앙승가대학교총동문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 안건: 1) 2005년도 예·결산 심의 건 2) 2005년도 결산 감사 보고의 건 3) 2005년도 장학금 보고의 건 4) 승가학 연구원 관련 보고의 건 5) 학교 상징물 보고의 건 6) 2006년도 사업진행 보고의 건 7) 총동문 성지순례 관련의 건 8) 기타의 건

회무 정념 월우 경진 원소 정민 광진 현수 법일 해득 도각 묘근 보화 정주 정묵 일지

선거관리위원장 해관 감사위원장 원천 감사위원 수봉 자용 문화분과위원장 미등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교 승가대학에서 함께 동참하시어 재학생스님들에게 축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본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922-7881 / Fax : 02)929-6919 홈페이지 : http://ob.sangha.ac.kr/

<운영위원> 1기 범산,혜옥 2기 인목,혜인 3기 송강,법륜 4기 혜진,일선 5기 수봉,현관 6기 도완,정민 7기 광진,현수 8기 일광,초우 9기 정암,법정 10기 각원,창욱 11기 활중,정현 12기 선용,혜철 13기 혜각,승우 14기 각문,각우 15기 덕관,묘현 16기 지일,인성 17기 상원,효성 18기 각연,종현 19기 보림,도선 20기 도전,수영 21기 범운,수현 22기 도봉,보규 23기 길상,도해 24기 해일,견허

사무처장 공운 사무국장 각연 실무간사 진일명

中央僧伽大學校總同門會長 退宇正念 合掌